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근거 마련

### 박재만 의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4일 임시회서 발의

도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오는 24일 개최하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원과 어장을 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

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새로운 어촌운동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동체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어장 환경개선시설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사업과 우수 공동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

체는 총 56개가 구성되어 전체 어가 인구 7,459명의 절반에 이르는 3,5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주도의 일률적인 지원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도내 기관들 전북투어패스 구매

도내 기관들이 전북투어패스 구입에 연이어 동참하고 있다.

전북도는 17일 1,000만원 규모의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한 도내 4개 상공회의소 기관 회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구매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도내 게임업체에 이은 세 번째 전달식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의 성공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판매가 중요하다"며 "이런 시기에 도내 기관 및 업체가 구매에 앞장서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구매에 동참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전북투어패스를 선물해 입소문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고 이를 계기로 도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구매의 이유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17일 1000만원 규모의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한 도내 4개 상공회의소 기관 회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구매 및 전달식'을 가졌다.

## 원격 제어 팜봇이 농사짓는 주말농장 생긴다

### 도 '디지털 도농교류서비스 모델', '농식품 ICT융복합 모델개발 공모' 선정

전북도가 '농업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디지털 도농교류서비스 모델'을 제안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ICT융복합 모델개발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정보기술연구센터와 함께 개발한 모델로 순창군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순창군은 사업 총괄 및 스마트 마실 시범사업을, 전주시는 농식품 ICT모델설계 및 SW 품질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공모에 선정된 '농업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디지털 도농교류서비스 모델'은 새로운 형태의 주말농장 모델로 캠핑장 등 체험객 편의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해 관광연계형 재배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팜봇을 제어해 농사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모 선정 과정 중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획기적인 스마트팜 모델로 높이 평가받은 바 있다.

또한 도시민들의 바른 먹거리에 대

한 관심을 기반으로 자가(원격)재배 시스템을 연계한 신뢰 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O2O(Online to Offline) 도농교류사업 모델을 디자인, 실질적인 농촌공동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영농인이 작물에 대한 재배지식과 경험을 e-러닝 시스템을 통해 전파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시스템을 통해 주말농장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향후 체험자들을 충성도

높은 직거래 소비자 그룹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농업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디지털 도농교류서비스 모델'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획기적인 스마트팜 모델로서 농촌공동체 및 농업,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도농교류 융합형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의 청소년들에게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농촌관광 기차여행' 전북 최다 선정

### 노봉훈불문학마을 · 고추장익는 마을 등 5개 마을 선정

전북도는 코레일 농촌관광 '옴통 기차 여행' 상품에 전국 최다인 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차여행 코스에 포함된 체험마을은 농식품부와 코레일 관광 개발과 협업해 으뜸촌 등 우수한 체험마을 중 체험지원 상품성, 인근 관광자원 연계 우수성, 철도망, 접근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으며, 도내에서는 남원 노봉훈불문학마을, 원주 오복,창포마을, 순창 고추장익는 마을, 부안 우동우리 밀마을이 선정됐다.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은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예약 및 상품 구매는 상품 출발일 자 한달 전부터 4일 전까지 가능하며, 상품 운영에 대한 자세한

상품은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수확여행하기 좋은 마을', '워크숍하기 좋은 마을' 등 맞춤형 테마별 관광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여러 개의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인근 유명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농촌관광객 40만 명 추가 유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차질없이 완료하고, 사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도 삼락농정 장터' 20~22일 개장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도 삼락농정 장터'를 오는 20~22일 도의회 광장에서 개장한다.

삼락농정 장터는 올해 10여회 운영할 예정이며 신선한 계절 먹거리 및 농축산가공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활성화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삼락농정장터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금·토요일(2일연속) 운영하며, 계절과일, 채소, 농가공품 및 수급조절품목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다채로운 관측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개장일인 20일에는 무료 떡나눔 및 2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증

정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직거래장터 참여농가(업체) 모집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 총 40개소 농가 및 업체들이 참여하며, 일예농산물 및 마을기업, 6차인증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농산물 및 가공품 등은 시중 가격대비 10%~20% 좋은 가격으로 신선 농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질 좋은 상품공급은 물론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례만남장터로 활성화돼 농업인 소득 5,000만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도민감사관 13개 분야 57명 위촉

전북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각 시, 군의 도민감사관 57명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도민감사관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 및 간담회는 위촉장 수여, 2017년 도민감사관 운영계획 설명, 일선현장의 도민불편 등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논의, 기타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촉식이 끝난 후 열린 첫 간담회에서는 도민감사관들이 지역 일선현장에서 평소 체감하고 있던 불편

사항과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는 등 생각보다 뜨거운 열의를 보여 관계자들이 긴장했을 정도라는 후문이다.

이번에 위촉한 제3기 도민감사관은 무부수 명예직으로 회계,건축,행정 등 13개 분야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참여하고 도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등을 통해 전북도정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